

“JYJ, 수백억대로 모시겠소”

도쿄돔공연 앞두고 몸값 급상승
日대기업등 10여곳서 러브콜 쇄도

4년 만의 일본 도쿄돔 공연을 앞둔 그룹 JYJ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JYJ(사진)는 일본 매니지먼트사 에이벡스가 2010년 9월 일본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자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약 80억 원의 손해배상 등 승소 판결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됐다. 이에 10개 안팎의 일본 대기업과 기획사들은 “JYJ의 일본 매니지먼트를 맡고 싶다”며 수백억원의 계약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JYJ가 4월2~4일 도쿄돔에서 15만 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를 벌인다고 발표한 후 러브콜은 더욱 뜨거워졌다. JYJ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0일 “일본의 유명 기업들이 수백억원의 계약금을 제시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접수된 간접적인 제안도 꽤 많다”고 밝혔다.

JYJ의 높은 인기를 감안하면, 이들의 수백억 몸값은 결코 높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JYJ는 에이벡스와 벌인 법정공방전 일본에서 발표한 미니앨범 ‘더…’로 약 17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또 도쿄돔·오사카돔 투어 등으로 4일 동안 20만 명의 관객을 모았다.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1년 10월 이바라키현에서 펼친 야외공연에도 8만여 명의 팬이 몰리기도 했다. 특히 JYJ의 다음달 도쿄돔 공연으로 인해 JYJ가 향후 일본에서 이뤄낼 성과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현지 기획사들의 영입 경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일본 측 파트너를 선택하는 데 조급함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번 JYJ 도쿄돔 공연도 직접 기획, 제작한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일본 활동을 직접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씨제스 측은 “JYJ가 일본 회사와 계약을 맺게 된다면 합리적인 계약금을 받아야 하겠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한 후 파트너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전적 1승1패’의 두 톱스타 김혜수(왼쪽)와 고현정이 세 번째 대결을 안방극장에서 치른다. 4월 김혜수가 ‘직장의 신’으로 선공하고 이어 6월 고현정이 ‘여왕의 교실’로 자존심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스포츠동아DB

김혜수 vs 고현정…이번엔 누가?

동국대 선후배 대결 전적은 1승1패
각각 ‘직장의…’ ‘여왕의…’로 3R
3년만에 안방 복귀…자존심 건 한판

전적은 1승1패. 나란히 1승씩을 챙긴 두 사람이 이제 세 번째 라운드를 시작한다.

주인공은 김혜수와 고현정이다. 두 사람이 나란히 3년여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해 또 한 번 경쟁을 펼친다. 동국대 연극영화과 선후배 관계인 두 사람은 그동안 비슷한 행보로 의도치 않게 경쟁구도를 형성하면서 미묘한 자존심 싸움을 벌여왔다.

이번 경쟁의 공세는 김혜수가 먼저. 4월 초 방송 예정인 KBS 2TV ‘직장의 신’이 그 무대다. 계약직 사원 미스 김 역으로 출연해 카리스마를 뽐낸다. ‘직장의 신’은 2007년 일본 NTV가 방송한 ‘파견의 품격’이 원작으로, 극중 김혜수는 상사도 쩔쩔매는 캐릭터를 연기하며 그만의 매력을 그대로 드러낼 기세다.

뒤를 이어 6월부터 고현정이 몸을 푼다. 그는 SBS 새 드라마 ‘여왕의 교실’에서 초등학교 여선생 마여진 역을 맡는다. 극중 고현정은 ‘마녀’ ‘사이코패스’ ‘구미호’ 등의 별명답게 아이들 앞에서 한 번도 웃음을 보인 적 없는 차가운 캐릭터. ‘여왕의 교실’ 역시 2005년 일본 NTV의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다.

비록 동시간대 방송하는 드라마는 아니지만, 최근 안방극장에 불어닥친 리메이크 열풍과 맹활약하고 있는 40대 여배우들의 대열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존재감을 과시할지 벌써부터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뜨겁다.

두 사람의 경쟁은 2010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김혜수가 주연한 MBC 드라마 ‘즐거운 나의집’은 평균 시청률 8%대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반면 고현정은 동시간대 방송한 SBS ‘대물’의 평균 시청률 24%로 김혜수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후 나란히 활동 무대를 옮긴 영화에서도 경쟁구도는 이어졌다. 김혜수와 고현정은 각기 주연한 영화 ‘도둑들’과 ‘미쓰고’로 지난해 여름 비슷한 개봉 시기에 맞붙어 관심을 모았다. 이 대결에서는 김혜수가 승리. 김혜수가 출연한 ‘도둑들’은 역대 최다 관객인 1298만 명을 동원했다.

이 같은 구도에서 나란히 1승씩 챙기자 세 번째 라운드가 될 새 드라마에 관심이 쏠린다.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선택한 드라마를 통해 이번엔 과연 누가 웃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리더들도 인정한 영화 ‘링컨’

필립스전자·암웨이 CEO들 찬사



“지도자로서 인간적 고뇌와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어려움, 그 속에서의 용기 있는 결단이 인상 깊다.”

필립스전자 김태영 사장은 미국 제16대 대통령 링컨의 마지막 4개월을 들여다본 뒤 이렇게 말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링컨의 그 치열한 4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4일 개봉하는 영화 ‘링컨(사진)’은 남북전쟁의 파고 속에서 연방 통합과 노예제도 폐지를 향한 링컨의 깊은 고뇌와 위대한 선택의 이야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다니엘 데이 루이스를 앞세워 링컨의 지도자로서 고독하지만 의로운 역사를 향한 발걸음을 카메라에 담았다. 영화 속에서 링컨은 험난하고 절박하며 그래서 더욱 무거운 시대적 공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리더로서 대의를 지켜 나간다.

최근 기업 CEO 등 경제 리더들이 지도자로서 또 그 이전에 역사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링컨에 대한 존경의 시선을 보내는 까닭이다. 그 자신 대통령으로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준” 영화로 ‘링컨’을 말한 미 버락 오바마처럼 필립스전자 김태영 사장과 한국 암웨이 박세준 사장, 화이자제약 이동수 사장 등 기업 CEO들도 ‘링컨’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SNL코리아’ 자체최고 시청률…이영자 19禁 콩트 통했다

신동엽과 20년만에 환상 호흡
“왜 이영자인지 입증했다” 호평



버스 안에서 문을 두드리며 ‘안 계시면 오라이~’를 외치던 이영자(사진)의 모습이 겹쳐졌다.

이영자가 9일 생방송된 tvN ‘SNL 코리아’에서 콩트 연기를 펼쳤다. 1994년 SBS ‘기쁜 우리 토요일’의 ‘영자의 전성시대’ 이후 20년 만이다. 가히 ‘명불허전’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영자는 이날 방송에서 신동엽과 호흡을 맞춰 SBS ‘그 겨울, 바람이 분다’를 패러디한 ‘그 겨울, 바람이 분단다’를 선보였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 신동엽의 ‘주요 부위’를 더듬는 등 적재적소에 ‘19금’ 유머코드를 넣어 웃음을 전했다. 20년 전, 자신의 히트작인 ‘영자의 전성시대’ 코너에서 버스 차장으로 콩트 연기의 진수를 보여준 이영자는 변함없는 신동엽과의 콤비 활약상으로도 돋보였다.

짧았던 준비 기간에 비해 반응은 폭발적이다. 당일 오전 한 차례 리허설뿐이었지만 이영자의 내공은 빛났다. 덕분에 프로그램은 3.9%(닐슨코리아)의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이를 통해 이영자는 대중에게 ‘제2의 영자의 전성시대’를 기대하게 했다.

이 프로그램 관계자는 10일 “신동엽·이영자 콤비의 활약상이 익히 알려졌듯 두 사람의 합이 워낙 좋았다. 그래서 애드리브도 살아났다”며 “이영자의 입담, 순발력, 연기력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왜 이영자인지’ 입증해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연예뉴스 스테이션

콘서트 연 세븐 “19일 현역 입대 전 작별인사 행복”



가수 세븐(최동욱·29·사진)이 19일 현역 입대한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10일 “세븐이 19일 경기 의정부 306보충대에 입소해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세븐은 9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데뷔 10주년 기념 토크 콘서트 ‘생큐(Thank You)’를 열고 팬들에게 입대 소식과 함께 작별의 인사를 전했다. 세븐은 “군대 가기 전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뜻 깊고 행복하다”며 제대 후에도 팬들을 위해 노래할 뜻을 전했다.

유지태 연출 ‘마이 라띠마’ 도빌뚜영화제 심사위원상

배우 유지태가 연출한 장편영화 ‘마이 라띠마’가 프랑스에서 열린 제15회 도빌아시아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다. 유지태의 소속사 티엔터테인먼트는 10일 “유지태가 연출한 ‘마이 라띠마’가 9일(현지시각) 제15회 도빌아시아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다. 자신의 첫 장편 연출작으로 해외 영화제 첫 수상의 영예를 안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도빌아시아영화제에는 한국, 중국, 일본,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의 작품들이 초청됐다. ‘마이 라띠마’는 6일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상영됐다. 취업에 실패하고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남자와, 국제결혼으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국제 결혼한 여자 라띠마의 사랑을 그린 멜로 영화다. 5월 개봉한다.

아이유, 20일 日서 새 앨범 ‘캔 유 히어 미?’ 발표



가수 아이유(사진)가 일본에서 미니앨범을 내놓는다. 아이유는 20일 일본에서 새 미니앨범 ‘캔 유 히어 미?’(Can You Hear Me?)를 발표한다. ‘뷰티풀 댄서’를 타이틀곡으로 모두 다섯 곡을 수록한다. ‘뷰티풀 댄서’는 재닛 잭슨 등과 함께 작업한 미국 프로듀서팀 ‘지미 잼 앤드 테리 루이스’의 노래다. 서정적인 멜로디와 아이유의 여성스러운 보컬이 어우러진 곡이라고 소속사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아이유의 일본 음반 유통사인 EMI뮤직 재팬은 9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뷰티풀 댄서’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27일 도쿄국제포럼에서 첫 일본 팬미팅 행사를 여는 아이유는 9일 첫 방송한 KBS 2TV 주말극 ‘최고다 이순신’의 주인공으로 활약 중이다.

포미닛 현아 美 도요타 자동차 CF 영상 공개

걸그룹 포미닛의 멤버 현아의 미국 CF영상이 공개됐다. 최근 온라인에는 현아가 출연한 미국 도요타 자동차 CF 영상이 등장했다. 작년 11월 미국에서 촬영한 광고로, 현아는 섹시한 의상을 입고 댄서들과 자동차를 배경으로 화려한 안무를 뽐내고 있다. 광고에 등장한 노래는 추후 싱글로도 발매될 예정이어서, 광고가 정식으로 미국 전역에 퍼지면 현아도 글로벌 스타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

복권

나눔로또 6/45 제536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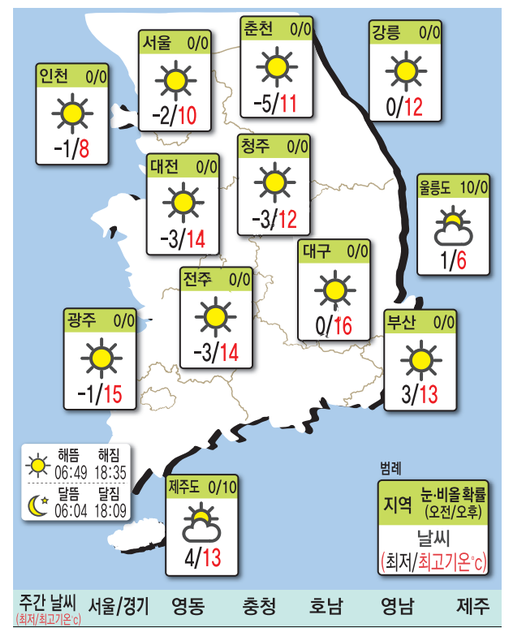
당첨번호						보너스
7	8	18	32	37	43	12

등수	당첨조건※	당첨금액
1등	6개 숫자 일치	1,308,523,603원
2등	5개+보너스 숫자 일치	59,973,999원
3등	5개 숫자 일치	1,431,361원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총 당첨금은 총 판매금액의 50% 이상임

오늘의 날씨

3월 11일 월요일 (음력 1월 30일)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www.sportsdonga.com
발행인 송대근 | 대표전화 02 2020 0114
인쇄인 최맹호 | 편집부 02 2020 1039
편집인 이성춘 | 스포츠1부 02 2020 1052
편집국장 양성동 | 스포츠2부 02 2020 1051
광고국장 이승욱 |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1
레저경제부 02 2020 1062
사진부 02 2020 1068
사업국 02 2020 1038
(우)110-7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